

# 옛 것과 새 것의 어울림, 천년. 교토.

글/한필원 한남대 건축학과 교수

## 역사도시의 힘

열차를 타고 JR교토역에 내려 밖으로 나오면 역 광장은 너른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이어진다. 마냥 시간을 죽이고 있는 연인들과 관광객들 사이를 비집고 옥상광장에 올라가면 고도(古都) 교토가 한 눈에 펼쳐진다. 그러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마냥 고색창연한 도시가 아니다. 오래된 들판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같은 새로운 건물들을 이곳 저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교토는 옛 것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새 것을 창조해내는 힘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극도로 현대적인 분위기의 JR교토역은 1997년 건축가 하라 히로시(原廣司)의 설계로 완공되었다. 도쿄대학의 교수를 역임한 이 건축가가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도시의 관문을 설계한 것은 숙명처럼 보인다. 그는 누구보다도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하는 건축가이기 때문이다. 그는 제자들과 세계의 오지들을 누비며 전통마을들을 공부하고 JR교토역을 준공한 해에 <마을의 가르침 100>이라는 책을 낸다. 전통마을에서 건축의 이상을 찾으려 했던 그가 수평적인 역사의 고도에 JR교토역이라는 수직적인 거대한 구조물을 구축한 것은 이 도시에서 억누를 수 없는 역사의 힘을 느꼈기 때문은 아닐까?

## 1,200년이 넘는 지층

도쿄가 일본의 정치·경제의 중심지라면, 교토는 일본의 역사·문화의 중심지이다. 도쿄가 17세기에 와서야 도움이 되어 근세도시로 출발했다면 교토는 이미 794년에 일본의 도움이 되어 고대도시로 시작하였다. 그래서 교토는 1,200년 이상의 지층을 가진 도시이다. 당나라의 도움지이었던 중국의 시안(西安)에 비견될 만하다.

교토에 도움을 정하고 헤이안(平安) 시대가 전개되었다. 헤이안은 당나라, 신라와 활발히 문물을 교류하면서 불교문화를 꽃피웠다. 귀족들의 후원으로 이 시기에는 평등원 봉황당(보도인 호오도: 平等院鳳凰堂, 1053년 창건) 등 유명한 사찰들이 다수 창건된다. 교토 지역에는 2,000개가 넘는 사찰이 있다. 그밖에도 천년고도 교토에는 많은 문화재들이 있다. 2개의 궁성, 400개에 달하는 신사, 수십 개의 정원 및 궁궐 등. 이런 귀중한 문화유산 때문에 2차대전 때에는 폭격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든다. 현대의 역사도시 교토는 그 많은 역사적 유물을 안고 어떻게 현재에 이른 것일까? 긴 시간의 유산들을 담아내는 틀은 무엇인가?

## 가로체계에 따른 도시의 두 모습

교토의 공간적 뼈대는 두 종류의 가로로 짜여진다. 요컨대 이원적인 가로체계인데, 그것은 대로와 이면 도로, 곧 일본에서 로지(路地)라 불리는 골목으로 이루어진다. 대동맥과 실타래 같은 이 두 종류의 가로는 각각 현대와 역사를 담고 있다. 대체로 대로에는 현대의 대규모 건물들이, 로지에는 중세부터 존재해온 2층 상점주택인 마치야(町家)가 세포처럼 매달려 있다. 현대건물과 전통건물이 뒤섞이어 충돌하는 것을 조절하고 또한 전통 디자인을 무리하게 현대 건물에 접목하려는 유혹을 피하면서 현대와 과거가 한 도시에서 공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원성 덕이었다. 융합이 아니라 공존, 그 속에서 현대와 과거가 같이 존중되는 것은 바로 교토의 도시조직이 갖는 특징이다.

## 유지되는 필지 조직

헤이안쿄(平安城), 곧 헤이안 시대의 교토는 24m 폭의 대로로 둘러싸인 정방형의 방(坊)으로 구성되는 격자형 도시였다. 이 격자형의 체계는 교토의 도심부에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바둑판 모양의 도시 블록은 다시 좁고 긴 필지로 구획된다. 가능한 한 많은 집을 가로에 면하게 하려는 의도에서이다. 그리고 그 필지들 위에 마치야가 세워졌다. 교토의 현대 건물들도 전면이 좁고 깊은 경우가 많다. 마치야가 있던 필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집만 다시 지은 것이다.

옆의 필지를 사서 바닥면적을 키워 수익성을 극대화하려는 욕심을 자제한 결과이다.

### 옛 것과 새 것이 공존하는 다양한 방식들

가장 소극적이면서 가장 확실한 신구의 조화는 옛 것을 유지하면서 새 것을 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교토에서는 마치야가 전시관, 료칸, 찻집 등으로 개조되어 쓰이는 것을 흔히 본다. 요즘 우리의 관심을 끄는 리모델링의 원조들이 널려있는 셈이다. 기온(祈園)과 같이 오래된 주택들이 모여있는 마치야 보존지구도 관광의 대상이 된다. 수백년 된 마치야에서 미색의 기모노를 입은 여주인의 안내를 받으며 녹색빛의 맛차(抹茶)를 한 잔 마시면 갑자기 역사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하다.

교토의 새 건물들은 선배들 앞에서 겸손하다. 'Syntax' 라는 로봇 같이 생긴 이상한 건물을 설계한 다카마쓰 신(高松伸)도 히가시혼간지(東本願寺) 구내에 있는 참배접대소를 겸손하게 디자인하였다. 품위있는 어른 앞에서 조용해지는 악동과도 같이, 그가 설계한 새 건물은 수줍은 듯 지하로 들어가서 지상의 17세기 옛 건물과 교감한다. 옛 것과 새 것이 아무리 근접해 있어도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새 것이 겸손할 때, 옛 것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경외의 대상이거나 부담스런 존재만은 아닌 것 같다.

교토의 새 건물들은 옛 것의 기준을 따른다. 옛 마치야의 디자인을 유지하는 건물이 있는가 하면 옆의 마치야와 어울리면서도 새로운 감각을 보여주는 건물들도 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옛 건물만이 아니다. 더 오래된 것이 도시의 조직이다. 교토에 도움을 정한지 1,200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여 건립한 교토 콘서트홀은 도시의 질서에서 설계의 단서를 찾았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건축가인 이소자키 아라타(磯崎新)가 설계한 이 건물은 대강당, 로비(foyer), 소강당이 서로 삐딱하게 놓여 있는데 알고 보면 그것들은 주변의 도시공간에서 발견되는 세 개의 선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도시에는 건물보다도 도시조직보다도 더 오래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산과 강 같은 자연요소들이다. 안도 다다오(安藤忠雄)가 설계한 타임즈(Time's I & II)

는 다카세강(高瀬江)에 건축공간을 최대한 근접시켰다. 오랜 역사를 통해 유유히 흐르는 강에 타임즈라는 새 건물을 통해 다가갔을 때 그것은 새삼 감동스러운 도시의 자연으로 느껴진다.

교토에는 콘크리트면을 그대로 노출한 새 건물들이 많다. 언뜻 이러한 노출 콘크리트는 거칠어서 목재로 지어진 마치야들과 잘 어울리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 뜻밖의 조화는 역사적으로 일본의 미학의 근원이 단순성에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교토에 옛 것과 새 것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큰 바탕이 되는 것은 이러한 미학적 동질성이 아닐까 한다. 그러한 단순성은 교토의 아름다운 정원인 가츠라리큐(桂離宮)에서 유래하여 안도 다다오를 비롯한 많은 일본 건축가들의 '절제의 미학'으로 계승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끊임없이 생산하는 도시, 교토

어떠한 도시도 생산을 통해서만 시간을 축적할 수 있다. 생산을 하며 힘겹게 시간을 축적한 결과를 우리는 역사도시라고 부른다. 우리에게 역사의 도시, 관광의 도시로만 알려져 있는 교토가 일본 최대의 내륙형 공업도시라는 것을 아는 이는 드물다. 19세기 후반 명치유신(明治維新) 이래 쇠퇴한 교토를 일으켜 세운 것도 이른바 삼대사업(三代事業)이라 불리는 사업이었다.

교토에는 산업에 있어서도 옛 것과 새 것이 공존한다. 헤이안시대에 중국과 한국에서 넘어간 사람들로부터 전수받은 방직과 요업 기술을 이어가는 시진오리(西陣織)나 기요미즈야끼(清水焼) 같은 전통 산업도 있다. 그와 함께 여성들에게는 그 이름이 낯설지 않은 란제리 회사, 와코루가 있으며, 피카츄라는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닌텐도(任天堂) 등의 첨단산업도 있다. 중공업으로는 시마즈(島津)제작소(이 회사의 주임인 다나카 고이치(田中耕一)씨가 2002년 노벨화학상을 받아서 화제가 되었다.), 미츠비시 자동차공업이 있다. 이러한 산업적 기반을 가지고 교토는 끊임없이 새로움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㉞